

통일시대의 전개와 제주도

고 성 준

(제주대학교 교수)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제주위상의 변화
 - 1. 개국신화부터 건국이전까지
 - 2. 건국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 3. 1960년대 이후
- III. 탈냉전시대의 전개와 통일시대의 개막
- IV. 통일시대를 향한 새로운 「제주위상」 방안
 - 1. 남북협상과 교류장소로서의 제주
 - 2. <제주개방선언>을 통한 능동적 통일노력
- V. 맺 는 말

I. 문제의 제기

우리는 그동안 통일과 제주도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듯 생각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핏보면 제주도는 민족사회의 분단선인 휴전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아낸 6·25의 경우에도 제주도는 직접적인 전쟁터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제주와 통일은 서로 먼 개념으로 인식되어 통일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에서나 하는 것으로 우리 제주인은 느끼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제주의 관계는 이미 깊은 관계에 놓여있음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못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구호나 캐치프라이스는 단순히 운동권의 구호일 뿐 아니라, 이제는 통일문제 얘기만 나오면 언급되는 상징적 구호다. 심지어 북한동포들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조선은 하나다’라고 외친다. 백두가 북한의 상징이라면 한라는 우리 나라의 상징이고, 제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 우상화 작업과 통일전략차원에서 이미 제주를 통일과 연결하여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 찬양서적의 하나인 <백두광명성 전설집>에는 한글 학습때 사용되는 '모음가'와 '자음가'가 실려있다. 이는 한글의 각 자음과 모음글자에 김정일 찬양 문구로 시작하는 첫 글자를 넣어 어린이들의 한글공부를 시킴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찬양을 내면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김정일 송가'이다. '자음가'는 한국학생들이 김정일을 흠모해서 만들어 낸 것이고, '모음가'는 제주도에 사는 '탄실'이라는 어린이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새롭게 힘을 얻는 노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전개에 맞추어 통일은 제주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밀접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일시대의 전개과정에서 제주가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되며, 또 통일을 앞당기는 데 제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주위상의 변화

1. 개국신화부터 건국이전까지

- | | |
|-------------------------------|--|
| ● 석기시대 | 역사의 기원, 고·양·부의 개국신화. |
| ● 「탐라」라는 명칭 고대국가, 3국시대와의 교류. | |
| ● 938년(고려 태조 21년) 고려에 입조(편입). | |
| ● 1271~1273 | 대몽항쟁. |
| ● 1273~ | 100년 원의 직접지배. |
| ● 1376(고려중엽)~조선조 명종 왜구침략. | |
| ● 1382~ | 유배지; 조선왕조, 300여명 유배.
<광해군,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부인, 송시열, 최익현, 김정희> |
| ● 1629~ | 200년 출륙금지령 [왜구의 침략·관의 수탈·흉년 → 탈출] |
| ● 1653 | 하멜난도. |
| ● 1901 | 이재수의 난. |
| ● 1915 | 제주군 폐지. |
| ● 1919 | 조천 독립운동. |
| ● 1930 | 제주면의 읍 승격. |
| ● 1931 | 해녀 항의 운동. |
| ● 1945.6 | 일본 관동군 75000명 포진(동시 → 제주도 인구 20만)
제주도를 미국 상륙시 요새화. |

위의 표를 볼 때 이 시대가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제주는 제주인의 기원이 있으며 역사적 출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제주인의 姓氏의 분가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단군신화와 함께 개국신화도 공유를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로 몽고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는 제주는 중앙정부의 관심지역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것은 제주의 특징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한다.

셋째 유배지였다는 점에서 제주는 변방지역으로 있었으며 변방으로 쫓겨온 사람들이 지식인이었기에 변방이었지만 선진지식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 건국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 1945. 8	해방.
● 1946. 8	1896년 전라도 편입 → 제주도 승격.
● 1948~1953. 11	4·3사건, 5만명 이상 희생.
● 한국전쟁 (1950. 7. 16)	피난민 들어옴. (토박이의 60%까지).
	4·3사건 이재민 } 지역개발 여유 없었음.
	6·25 피난민 }
	반면 폐쇄사회가 개방사회로.
● 1951. 3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 양병기지.

위 표를 보면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제주는 「4·3사건」을 겪음으로써 인구 20만 명 중 5만명이 희생되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그 고통이 컸다. 그런 면에서 남북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하겠다. 그러나 「4·3」의 정당한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아픈 역사의 상처를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둘째로 한국전쟁시 제주는 불가피한 개방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피난민의 유입은 한때 제주토박이의 60%까지 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4·3」과 한국전쟁은 제주의 본래의 동질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한국전쟁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내륙의 전후복구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제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했다.

3. 1960년대 이후

● 1960년대	영농방법 개선. 감귤·유채 경제작물 생산.
● 1963.	제주도 관광자원의 가치 인정.
● 1968.	제주비행장 국제공항으로 승격.
● 1971.	오사카 국제항로.
● 1973~1986.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
● 1980.	NO VISA지역 선포. 신혼관광지 = 현재 300~400만(외국인 30만)
● 1991. 4.	한-소 정상회담 개최 → 냉전해빙의 시작 →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평화, 안정구축 역할 부상
● 1991. 10.	제주국제협의회, “평화의 섬” 구상 제시.
● 1995. 7.	민선자치시대의 개막.

이 시기가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3공화국에서부터 제주의 위상이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토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여 제주가 주변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제주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가 세계로 편입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제주위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로의 편입은 1980년대 NO VISA지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국제교류시대의 개막을 뜻하기도 한다.

셋째 91년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는 제주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 있어 탈냉전의 상징성을 갖게 됨으로써 제주의 전략적 가치가 단순한 국제관광지역에서 예컨대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Ⅲ. 탈냉전시대의 전개와 통일시대의 개막

21세기를 5년여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변화는 탈냉전시대의 전개다.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종식을 고하면서, 그 여파는 동북아시아에도 밀어닥쳐 이념대결의 축을 중심으로한 기존의 질서를 와해시켰다. 이제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한반도 내부에 상륙하여 50년간 지속된 이념중심의 분단체제를 허물어 갈 태세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질서가 냉전체제였다. 냉전질서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을 미국과 소련을 헤드국가로 하는 두 개의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진영 어느 한 편에 편입케하였다. 그리고 양 진영간에는 집단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게 했다. 우리의 힘으로 되찾은 광복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의 힘에 의해 얻어진 것이기에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전후 세계질서인 냉전체제가 자동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단일민족사회를 이루어 온 우리 한민족 사회는 냉전에 의해 이질적인 두개의 사회로 나누어졌고, 국제적으로 냉전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분단체제도 굳어져 갔으며 남북한 체제의 적대관계도 깊어져 갔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냉전시대에 있어 두 진영이 충돌한 가장 대표적인 격전장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을 겪어왔다.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만을 안겨 주었던 냉전시대의 종식은 우리들에게 남다른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은 당연하다.

세계질서가 냉전시대를 벗어나 형성되어 가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국가의 내외정책추진의 근거로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산주의진영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이 기준을 내외정책에 원리로 적용해온 것을 철폐함으로써 비롯되어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중국이 이에 동참하면서 이데올로기차원에서 세계는 편향성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가의 정책판단기준으로 이데올로기 대신 등장한 것이 경제우선주의의 확대에 입각한 국가이익추구현상이다. 모든 국가들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와는 경원하게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적 지역협력체제를 갖추었거나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유럽은 EU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APEC으로, 북미지역은 NAFTA 등으로 지역협력의 틀을 잡아가고 있고, 이 추세는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에는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

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새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수립·등장과 대외적 관계에 있어 획기적 변화인 대미관계의 개선이다. 전통적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관계변화는 미국이 북한과 제네바에서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이는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함께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북한은 앞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먼저 지난 1년동안 북한 내에서 있었던 주요사건들을 통해서 북한의 새 흐름과 과제를 살펴보자.

●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 1994년 10월 21일	핵문제에 관한 북미 제네바협약.
● 1994년 11월 4일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발표.
● 1995년 1월 20일	「북·미 기본합의문」에 근거한 미국의 대북한 무역 규제 완화조치를 위한 4개항의 조치를 발표함.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 1995년 2월 14일~18일	북한은 GM, MCL, 종합용역회사 스텐턴 그룹, US워싱턴 은행 등을 포함한 11개사로 구성된 미국기업대표단을 초청하여 나진·선봉지구의 통신망 설치 등 각분야의 경험 가능성 타진.
● 1995년 3월 28일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에 합의.
● 1995년 4월 28일~29일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제」 개최.
● 1995년 5월 26일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 일본의 쌀 잉여분 대여 요청(한국 쌀도 받을 용의 있음을 표명)
● 1995년 6월 12일	북·미간에 경수로 협상타결.
● 1995년 6월 19일	김정일은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라는 논문발표.
● 1995년 8월 25일	유엔人道局(DNA)에 수해구호요청.

지난 1년동안의 주요 사건들의 나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대외개방을 향한 걸음을 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난의 해소를 위해 지난 91년 12월에 설정한 나진-선봉지역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외자유치관련법도 계속 정비했고,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위시한 외국기업 심지어 대결상대인 남한의 기업가지도 초청해 왔다.

둘째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워 수출생산 증대를 도모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92년이래 추진해온 '신무역체계'의 도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신무역체계는 생산자가 대외무역가지도 직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로써, 위원회, 부, 도 등에 생산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까지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무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셋째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주적으로 여겨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왔으며, 일본 또한 북한체제의 존립근거가 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후 계속해서 적대국가로 여겨왔다. 그런데 어제까지 적이었으며 자본주의 대표국가이기도 한 두 국가와 관계개선을 통해 친구가 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이것을 상황에 따른 임기 웅변적인 결정이나 일순간의 정책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문제는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북한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한 바 있다. 논문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회주의체제수호와 이념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간을 검토할 때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1995년 6월 19일 발표한 김정일의 논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도 94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 역시 사회주의체제고수를 비장하게 다짐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사회주의 전선의 와해가 유물사관의 명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사상사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의 사상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교시는 한편으로 완고한 체제 사수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외개방에 즈음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변화의 물결을 반증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이래 북한의 경제는 정권출발 이래 최악의 사태라고 얘기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본 무역진흥회(JETRO) 발표에 의하면 1994년도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3.5%감소한 9.7억 달러, 수입은 22.9%가 줄어든 12.5%가 줄어든 12.5억 달러에 그쳤다. 에너지, 식량 등 경제운영의 기초부분도 절대 부족한 형편으로 경제전반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의 성공은 북한체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김정 일에게는 새 시대에 필요한 통치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금년 7월과 8월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북한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북한측 주장으로는 약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귀순자들은 그 피해가 훨씬 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전역을 강타한 1백년만의 수재가 북한 주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설상가상으로 8월초 대홍수때 북한석유수송의 90%이상을 담당하는 「朝 - 中우호송유관」 일부가 유실 외부로부터의 석유도입이 전면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가뜩이나 침체된 북한경제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은 위기에 처한 체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중국식 개방과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남한과의 관계개선도 '남조선 해방'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포기하고 교류와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변화가 한반도에 통일시대라는 새지평을 열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IV. 통일시대를 향한 새로운 「제주위상」 방안

앞에서 살펴본 제주의 위상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왔지만, 문제는 그것이 제주인 의지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외세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자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미래의 제주위상도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찾아야만 할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시대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독자성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주위상 만들기에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의 가능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에서 비롯된 「4·3」과 같은 아직 풀지 못한 역사적 숙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의 해명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일시대의 전개 속에서 제주도의 위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러한 숙제까지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제주인으로서 민족사의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시대적 특성과 제약요인으로 인해 남북통일을 위한 제주의 독창적 노력은 가능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불가능했다. 그 결과 제주의 통일운동은 민주평통제주지역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전개해왔고 아울러 대학의 유관연구기관에서 학술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생운동차원에서도 통일역량을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통일운동에 있어 제주가 갖는 독창성이 제기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시대전개에 맞는 제주도의 새로운 위상 정립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남북협상과 교류장소로서의 제주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된 남북회담은 주로 판문점에서 개최돼 왔으며 때때로 서울과 평양이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냉전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판문점과 서울 그리고 평양은 장소 자체가 회담대표들로 하여금 화해노력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제 탈냉전체제를 맞이하여 통일회담 개최지로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91년의 한-소 정상회담은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새롭게 만들었다. 제주만이 안고 있는 역사성, 자연조건, 지리적 위치 등은 국제평화를 가져다 줄 장소로 부각되었다. 이런 점에서 제주가 판문점과 서울을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될 필요가 있다. 제주야말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분단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남북의 이해상충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또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도 회담을 백두산과 한라산을 기점으로 제의한 바 있어 통일시대의 남북협상 장소

로써 제주를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북회담이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뒤 이를 제반 남북교류의 장소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라산을 보고싶어 하는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하면 제주는 남북의 만남 장소로 최적지가 될 수 있다.

2. <제주개방선언>을 통한 능동적 통일노력

제주가 남북협상과 교류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주의 능동적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제주를 평화지역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4·3>위령탑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함은 제주지역에서 먼저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제주국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기해 온 '제주-평화의 섬'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화해를 도모하고 상호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제주를 개방한다는 <제주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제주인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주개방선언>이 상징적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가. 남북회담 전용시설 및 교류시설의 확충
- 나. 남북한 교류 및 통일센터의 설립
- 다. 남북한 교통수송로의 확보
- 라. 이에 따른 행정의 정비 및 관계법규의 마련

<제주개방선언>은 북한에 <백두개방선언>을 유도하여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 구축과 공동체 형성에 제주가 센터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까지 고려한 의미를 지닌다.

V. 맺는 말

제주에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도 분단과 이데올로기대립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겪었다. 그럼에도 휴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으로 50여년을 지내오면서 제주인은

물론이고 내륙에 사는 사람들도 통일과 제주는 무관하거나 관계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탈냉전시대의 전개와 북한의 변화는 이제 한반도에도 통일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간의 협상과 교류 그리고 협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펼쳐 지려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만남과 교류의 센터로 냉전의 산물인 판문점을 대체할 새로운 장소의 모색이 필요한 때다.

여기서 우리 제주인은 탈냉전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제주개방선언>을 통해 제주를 남북협상과 교류의 센터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의 센터가 되자는 바람까지 연결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제주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과 제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시대에 제주가 통일의 구심점이 되자는 다짐과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주인의 구상>이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 속에 펼쳐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시대의 제주위상만들기는 제주의 일부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인 모두의 합의된 의견도출이라 하겠다.